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냉장·냉동식품, 중국 수출 가이드

- 산동성 물류 인프라 중심으로 -

KOTRA자료 24-219

냉장·냉동식품, 중국 수출 가이드

—산동성 물류 인프라 중심으로—

목 차

I. 중국 냉장·냉동식품 소비 트렌드	1
1. 중국 냉장·냉동식품 소비 트렌드	1
II. 중국 식품 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8
1. 중국 식품 수출 절차	8
2. 식품 수입 관련 중국 기관	11
3. 통관 시 유의사항	13
III. 한-산동성 식품 물류 인프라	15
1. 산동성 물류 인프라	15
2. 산동성 항구별 특징	18
3. 산동성 물류창고	20
IV. 냉장·냉동식품 주요 수출 사례 및 시사점	23
1. 주요 수출 사례	23
2. 시사점	30

요 약

□ 중국 냉장·냉동식품 소비 트렌드

-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가공식,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을 찾는 소비자 또한 늘고 있음
-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해져 소비자들의 냉장·냉동식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중국 식품 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중국 식품 수출은 해외생산기업 등록, 품목별 수출입 조건 파악, 수출신고, 수입신고, 검역, 관세 납부의 절차로 진행
- 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기관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가 있음
- 중국 식품 통관 시 통관이 거부되는 최다 사례는 라벨링 규정 미준수로 수출기업의 라벨링 표기 등 관련 규정 숙지 필요

□ 한-산동성 식품 물류 인프라

- 산동성은 지리적 측면·통관 시스템·콜드체인 물류 등 신선식품 수출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
- 산동성 항구별 특징이 다르므로 식품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
- 산동성에는 냉장·냉동 창고를 보유한 물류통관사가 다수 소재하여 신선식품 보관·통관에 유리

□ 냉장·냉동식품 주요 수출 사례

- 치즈볼·꼬마피자·계맛살·우유·냉동 김밥은 산동성을 통해 수입 유통되어 중국 전역으로 판매되고 있음

I. 중국 냉장·냉동식품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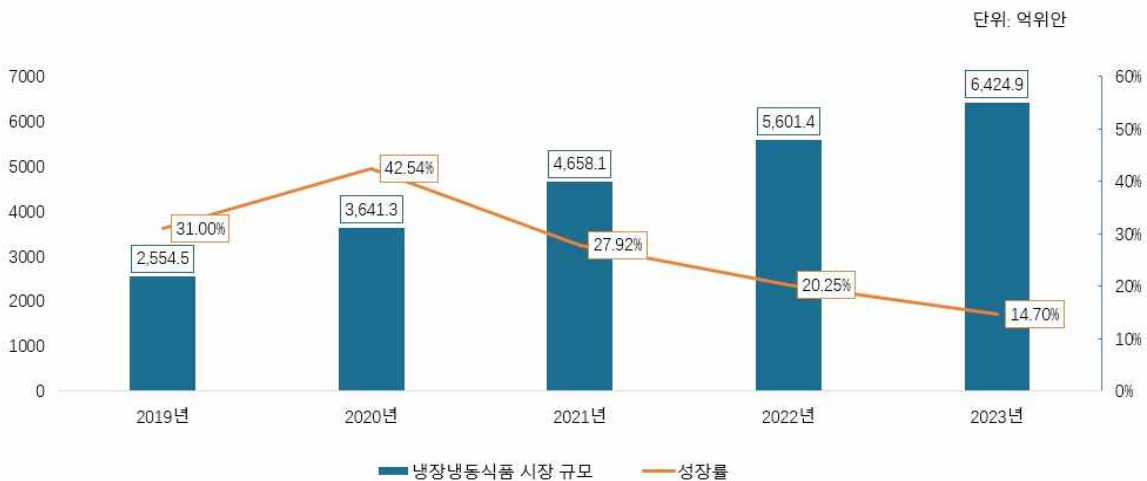
1. 중국 냉장·냉동식품 소비 트렌드

- 1인 가구 증가·빨라진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로 간편식품·가공식품·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냉장·냉동식품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인식되며 냉장·냉동식품(신선식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 중국 1인 가구 비중은 2023년 17.8%로 2013년 14.6% 대비 3.4%p 상승하였으며,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중국 국가통계국)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냉장·냉동식품 시장

- 2023년 중국 냉장·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6,424억 위안(한화 약 125조 원)으로 2019년 2,554억 위안(한화 약 49조 원) 대비 150% 이상 확대되었음
- 2019~2023년 중국 냉장·냉동식품 시장은 연평균 약 27% 성장 추세에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빨라진 생활 리듬 영향으로 향후에도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관엔텐샤(观研天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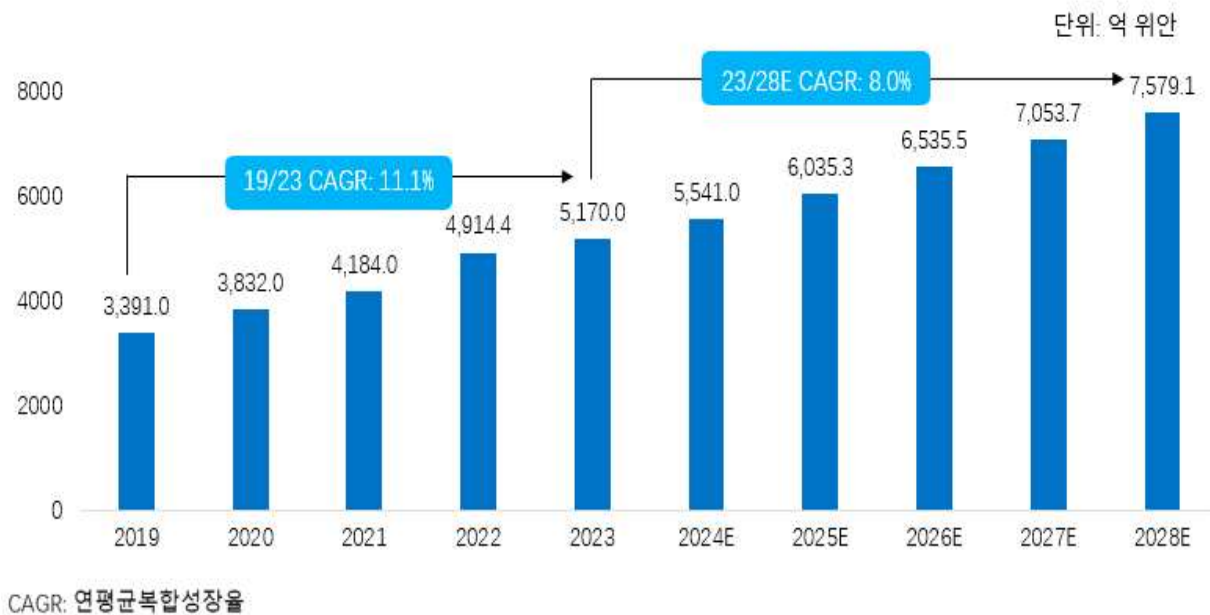
[2019년~2023년 중국 냉장·냉동식품 시장 규모]



[출처 : 관엔텐샤(观研天下)]

- 중국 냉장·냉동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콜드체인 물류 산업이 발전한 것에 기인
 - 중국 콜드체인 물류산업은 2019년 3,391억 위안(한화 약 66조 원)에서 2028년 7,579억 위안(한화 약 14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콜드체인 물류산업 확대는 냉장·냉동식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콜드체인물류연맹)
 - 콜드체인 산업 발달은 냉장·냉동식품의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물류 비용 또한 절감되어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2019~2028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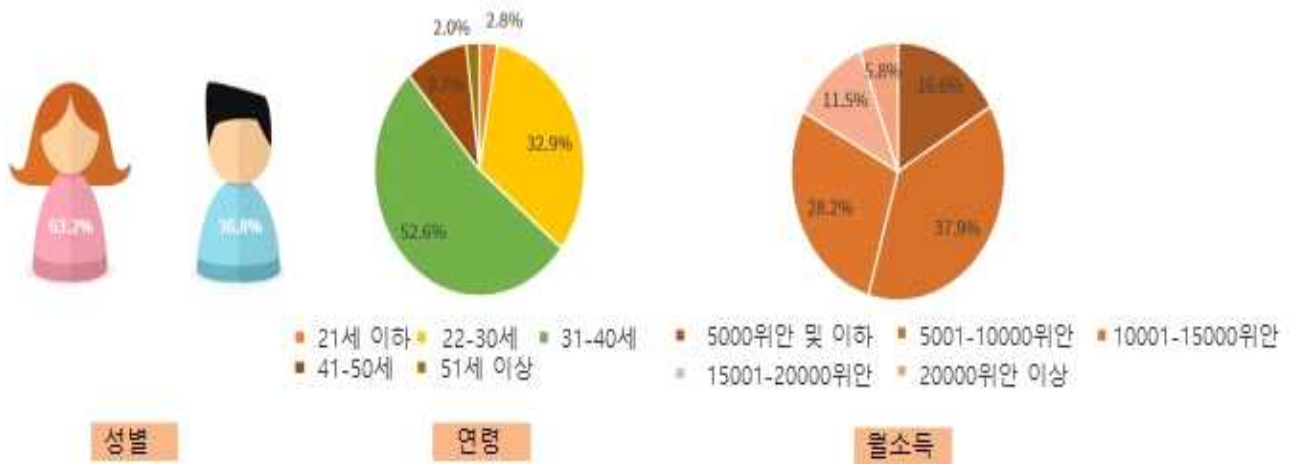
[자료 : 중국콜드체인물류연맹]

□ 중국 냉동식품 시장의 소비 특성

-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30대가, 월소득 기준으로는 5천~1만 위안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의 구매 비율이 63.2%로, 남성 36.8%보다 높은 편이며,

- (연령) 31~40세의 구매 비율이 52.6%, 22~30세 구매 비율이 32.9%로 나타나 젊은 소비층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 월소득 5천~1만 위안대 소비자의 구매 비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만~1만 5천 위안대 소비자가 28.2%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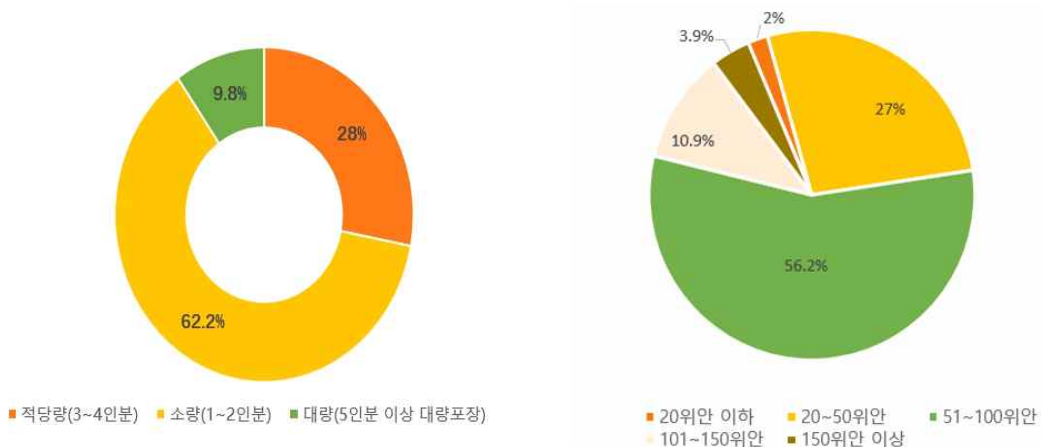
[냉동식품 소비자 특성]



[출처 : iiMedia Research]

- 평균 구매 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소비자들은 냉동식품 구매 시 1~2인분의 소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62.2%) 나타남

[냉동식품 구매 시 평균 구매 수량 및 평균 구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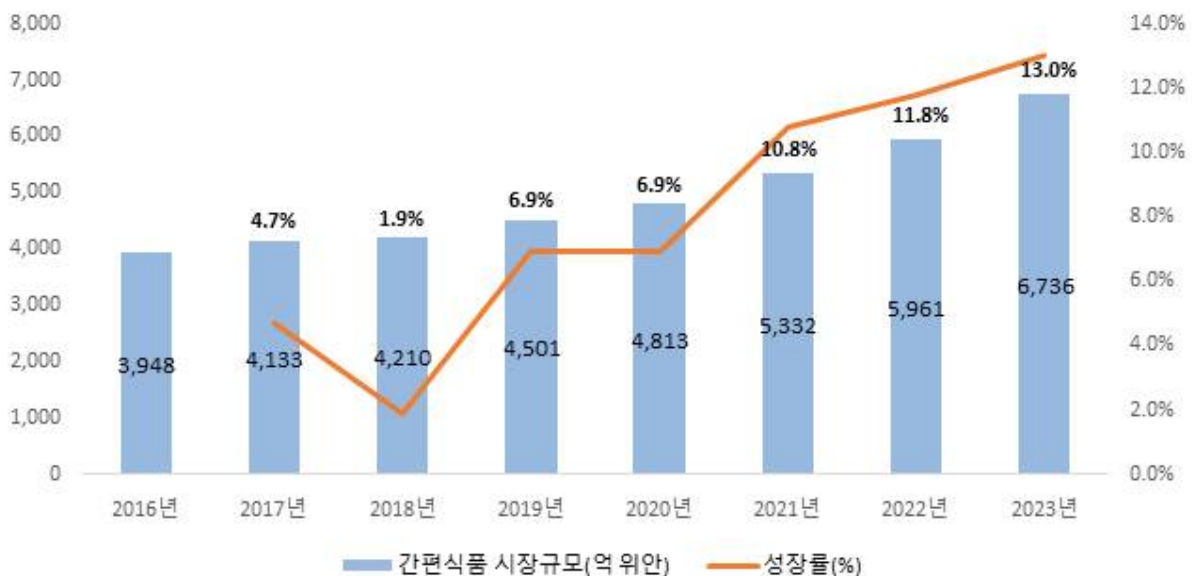
[출처 : iiMedia Research]

- 평균 구매 가격대는 51~100위안대의 구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중국 소비자들이 냉동식품 구매 시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51~100위안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50위안이 27.0%, 101~150위안 10.9%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식품(一人食) 등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음

- 중국 간편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4,133억 위안(한화 약 80조 원)에서 2023년 6,736억 위안(한화 약 131조 원)으로 63% 확대되었음
 - 중국 간편식품 시장 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은 연평균 5%대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0년대 들어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6~2023년 중국 간편식품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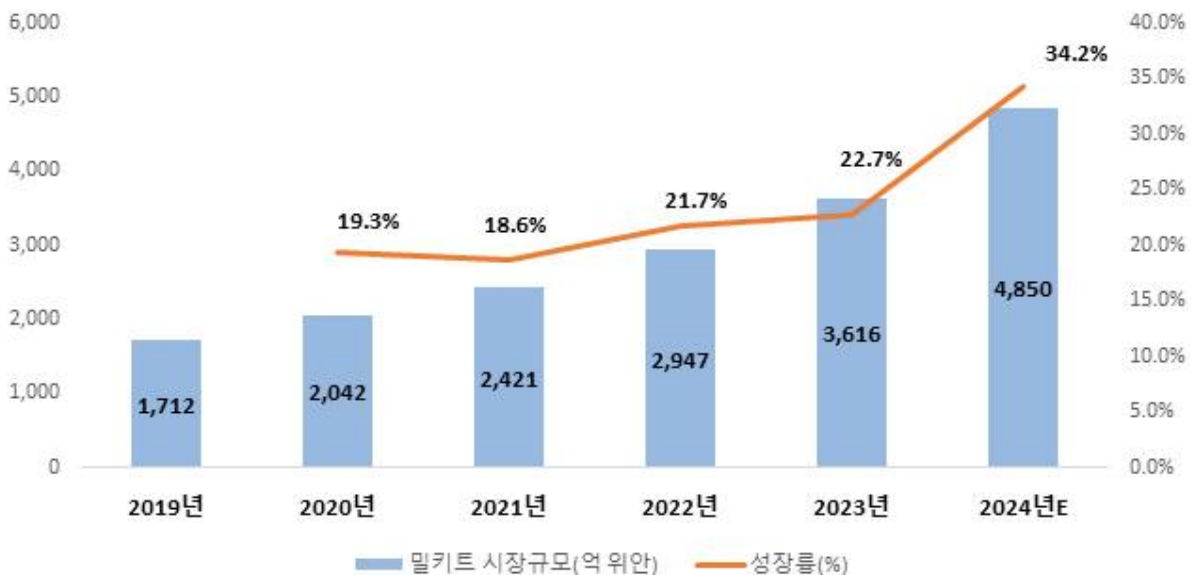
[출처 : iiMedia Research]

- 간편하고 빠른 식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영양 및 신선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냉동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 라면 등 전통적인 인스턴트 간편식 외에 밀키트·냉동만두·냉동 피자 등 냉동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 증가 추세
 - * 신선식품 유통업체 HemaFresh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식품 원재료 구입보다 간편식에 대한 소비를 늘리고 있으며 간편식 중에서도 냉동 간편식에 대한 판매가 늘고 있음 (‘24.11월)

□ 코로나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가공식품(밀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도 시장 확대를 견인

-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가공·냉동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는 밀키트를 비롯하여 김밥, 소세지 등이 포함되지만, 최근 가공식품 시장 성장은 밀키트 판매량 증가가 견인하고 있는 추세임

[2019~2024년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



[출처 : iiMedia Research]

- 중국 밀키트 시장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2020년 2,042억 위안(한화 약 39조 원)에서 2024년에는 4,850억 위안(한화 약 9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밀키트 중에서는 냉동회귀 재료 관련 밀키트 판매량이 가장 많은 편이며, 볶음밥·면·만두 관련 밀키트 판매량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 2023년 중국 냉동회귀 시장은 약 660억 위안 규모로 밀키트 시장의 14%를 차지함 (출처:중상산업연구원(中商産業研究院))

- 펜데믹 이후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며 건강식품 수요도 증가
 -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주요 검색 플랫폼 틱톡(더우인), 웨이신, 바이두에서 건강 관련 검색 지수가 크게 증가함.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반영
 - * 펜데믹 이후(2020~2023년) 건강 관련 검색량은 펜데믹 이전 대비 200% 이상 증가

[중국 주요 플랫폼 건강 관련 키워드 검색 지수]

소비자 건강 핵심 트렌드

섭취: 식품 성분에 대한 이해 증가

-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 영양성분 인식이 높아짐
- 신상품 출시 및 식품 업그레이드로 소비자의 건강 인식 강화

틱톡 키워드
검색 지수

↑ 254.6%

*지우량 산수
(巨量算数)

건강: 핫 한 건강기능식의 인기

- 중국식 보양이 유행하여 건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휴대용 포장으로 젊은이들의 건강식에 불편함 해소

웨이신 키워드
검색 지수

↑ 473.9%

*웨이신 지수
(微信指数)

운동: 운동 인식의 일반화

- 운동 기능 식품은 간식 처럼 편리화 됨
- 운동 영양성분이 일상 식사로 자리잡음

바이두 키워드
검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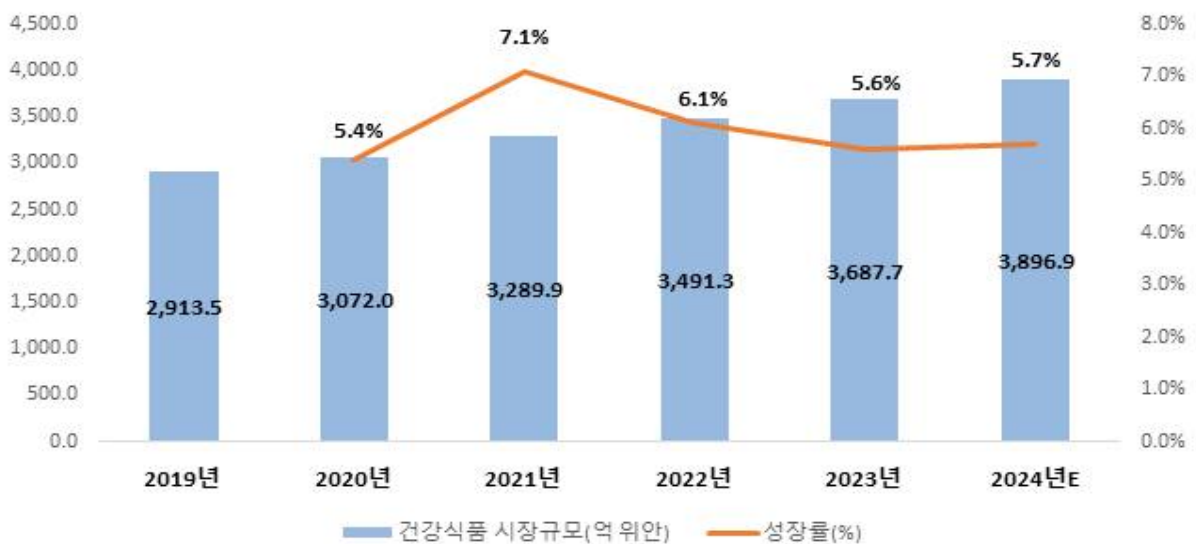
↑ 1437%

*바이두 지수
(百度指数)

[출처 : 2024식품영양건강트렌드보고서(2024食品营养健康趋势报告)]

- 건강식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건강식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음
 - 2024년 중국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3,896억 위안(한화 약 76조 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9년 2,913억 위안(한화 약 57조 원) 대비 34% 성장한 수치임
 - *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향후 중국 건강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2024년 중국 영양 건강식품 시장 규모]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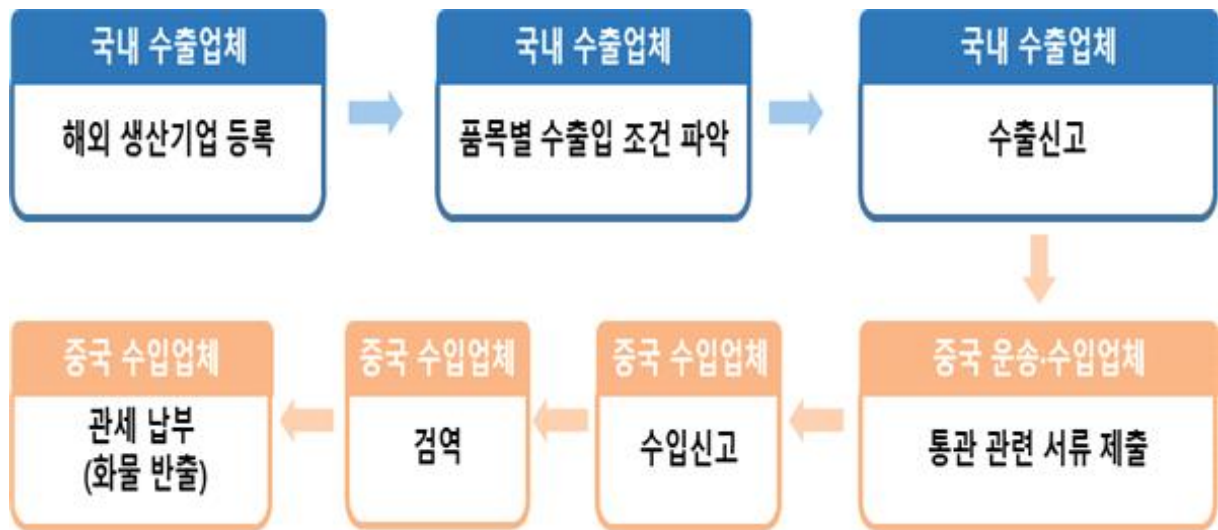
- 기존의 보건식품(영양제)에 국한되지 않고 유기농 식품을 비롯하여 기능성 음료, 무가당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단백질 바·곡물 음료 등 식사 대체 식품과 유기농 식품, 동결건조 식품, 수면 개선·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음료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저칼로리 간식·저당 음료, 미용에 도움 되는 콜라겐 등에 대한 건강식품 수요 또한 증가 추세임

II. 중국 식품 수출 절차 및 유의사항

1. 중국 식품 수출 절차

-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해외생산기업 등록, 품목별 수출입 조건 파악, 수출신고, 통관 관련 서류 제출, 수입신고, 검역, 관세 납부 (화물 반출)의 절차를 거쳐야 함

[중국 식품 수출 절차]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 (해외생산기업 등록) 수출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境外生产企业注册登记)’을 해야함
 -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해외생산기업 등록은 자체 등록과 추천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뉨
 - 수출업체가 서류를 구비하여 해관총서에 자체적으로 해외생산기업 등록
 - 한국 주관부서(해양수산부 등)를 통해 추천 등록 방식으로 해외생산기업 등록

구분	자체 등록	추천 등록
대상	수출 품목이 등록 대상 품목(18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출 품목이 등록 대상 품목(18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주체	수출기업 -> 中해관총서	수출기업-> 韓주관부서* -> 中해관총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추천서 ○ 기업 신분 증명 서류 ○ 기업이 중국 규정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의 추천서 ○ 주관부서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보고서 ○ 등록 신청서 ○ 기업 신분 증명 서류 ○ 기업이 중국 규정에 부합한다는 성명
등록 방법	중국 국제무역 Single Window(单一窗口) 사이트에서 등록 (www.singlewindow.cn)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영상 검사, 현장 검사	
유효기간	5년 (만료 3개월~6개월 전 연장 신청 필요)	

- * 등록 대상 품목(18종류) : 과일,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꿀, 알 및 알 관련 제품(계란 등), 식용유 및 유지 원료, 소 함유 밀가루 음식, 보건식품, 조미료, 견과류, 케이싱(소세지케이싱), 특수 식이용 식품,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로스팅 하지 않은 원두, 식용 곡물

[출처 : 해관총서, KOTRA 청다오무역관 자체 정리]

□ (품목별 수출입 조건 파악) 수출기업은 수출 품목 관세 및 중국 수출 시 구비해야 하는 요건(라벨링, 검역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함

- 중국은 식품 통관 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정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품목별로 식품안전표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수출 전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해야 함

* 라벨링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입통관 거부되는 사례 多

- (수출신고) 수출기업,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에 수출신고
 - 수출기업은 상업송장 등 수출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UNI-PASS)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함. 수출신고 후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수출신고필증 발급
 - * 수출기업은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3년 간 원본 보관해야 함
 - 축산물과 식물의 경우 중국 수입 요건에 의해 수출 전 검역 절차가 추가됨
 - * 수출 전 검역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종자류, 일부 과일, 채소류, 축산기공품 등이 있음

- (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적하목록 제출) 수출기업은 수출신고를 마친 뒤 중국 해관에 통관고유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운송업체는 화물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중국 해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적하목록의 경우 항공 운송·해상 운송인지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 전 기한에 유의하여야 함
 - * 항공 운송 : 4시간 이하의 경우 이륙 4시간 전 제출 필요, 4시간 이상의 경우 목적지 착륙 4시간 전 제출 필요
 - * 해상 운송 : 컨테이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필요, 컨테이너 외 선박의 경우 목적지 입항 24시간 전 제출 필요

- (수입신고 및 검역) 수입기업은 화물이 목적지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서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해관에 제출
 - 수입기업은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라벨(중문), 포장 명세서, 검역신고서, 수입 라이선스 등
 - 아울러, 수입기업은 상업송장 및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라벨(중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 수입신고 및 수입검역 모두 Single Window(www.singlewindow.cn)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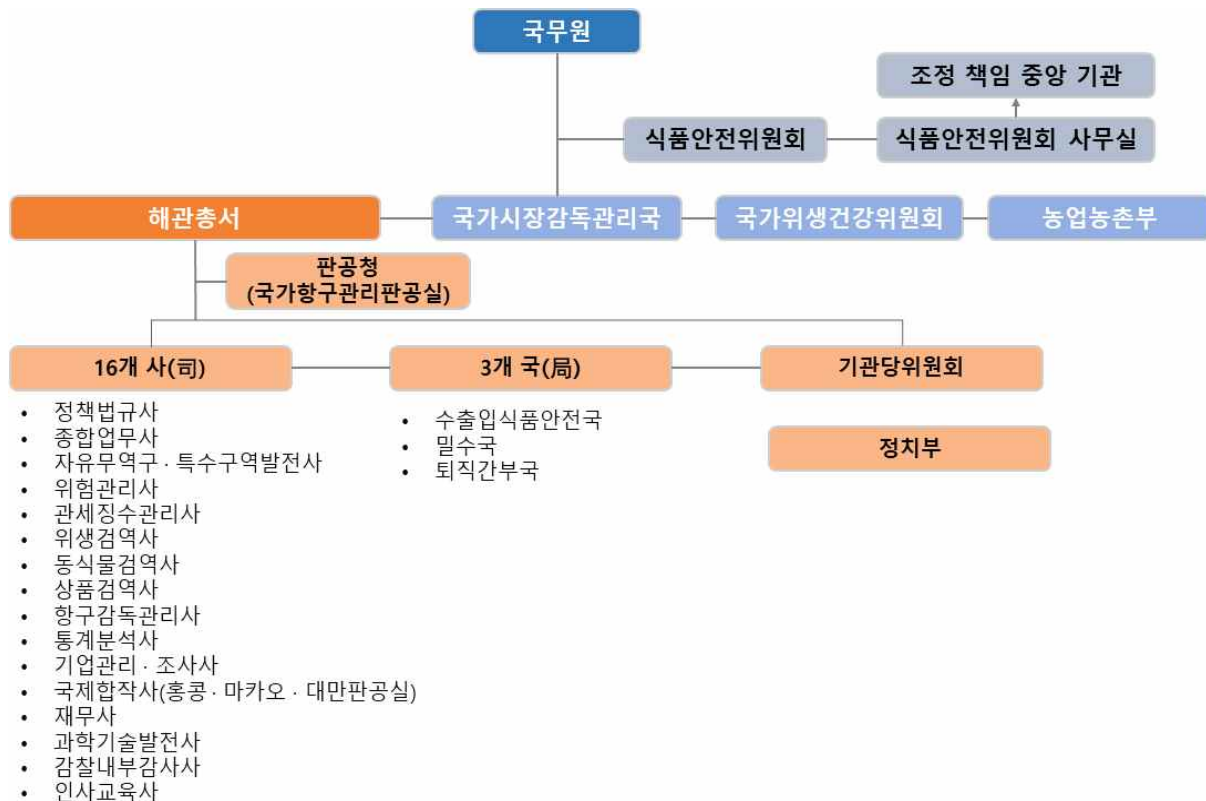
□ (관세 납부 및 화물 수령) 수입기업은 납부고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관세 납부 후 화물 수령 가능

- 중국 해관은 수입신고 및 검역이 모두 완료된 후 수입기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행함. 수입기업은 해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관에 관세 납부 후 화물을 수령할 수 있음

2. 식품 수입 관련 중국 기관

□ 식품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기관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4개의 부서가 있음

[중국 식품 수입 관리 조직도]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 **해관총서**

- (주요업무) 수출입 관세, 수출입 상품 검역 및 감독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위생검역, 수출입 통계 분석 등
- (주요부서) 수출입식품안전국, 관세징구관리사(司), 위생검역사, 동식물검역사, 상품검역사 등

○ **국가시장감독관리국**

- (주요업무) 식품 안전 및 제품 품질·안전 검사 등
- (주요부서) 식품생산안전감독관리사(司), 식품경영안전감독관리사, 특수식품안전감독관리사,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등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주요업무) 식약품 안전 위험 평가, 식품 안전 표준 제정, 공공 위생감독관리, 임상종합평가 관련 업무 등
- (주요부서) 식품안전기준및모니터링평가사(司) 내 종합처, 식품안전표준관리처, 식품안전모니터링처 및 평가처, 식품영양처 등

○ **농업농촌부**

- (주요업무)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및 위험 평가, 농산물 품질 관련 국가표준 제정, 유기농 식품 관련 총괄 업무 등
- (주요부서)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사(司) 내 감시처·감독관리처·표준처 등

3. 통관 시 유의사항

- 수출신고 및 통관고유번호 발급, 적하목록 제출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후 검사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 해관에서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최근 5년 간 한국산 식품의 통관이 거부된 사례는 총 341건으로 라벨링 문제가 83건(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 초과(71건), 균락 기준치 초과(51건), 서류 미비(50건)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 라벨링의 경우 매년 통관 거부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2023년의 경우 한국 식품 통관 거부 사례 총 122건 중 32건(26%)이 라벨링 문제였음)

[2019~2023년 한국 식품의 유형별 통관 거부 사례]

구분	품목				합계	비중
	가공식품	음료	건강식품	수산물		
라벨링 문제	42	28	13	-	83	24.3%
식품첨가물 사용 초과	51	13	7	-	71	20.8%
균락 기준치 초과	35	14	2	-	51	15.0%
서류미비	24	6	5	15	50	14.7%
유통기한 초과	7	17	4	-	28	8.2%
검역 미허가	16	-	-	6	22	6.5%
검사검역 미취득 동물원 성분	18	1	-	-	19	5.6%
영양소 표준 미달	4	3	2	-	9	2.6%
수분 기준치 초과	4	-	-	-	4	1.2%
기타 (기생충 검출 불순물 초과 등)	1	-	-	3	4	1.2%
총계	202	82	33	24	341	100%

[출처 : KOTRA 청다오무역관]

□ 라벨링은 통관 거부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식품 수출 전 중문 라벨링 표기에 대해 숙지할 필요

○ 라벨링 제도

- 중국 식품 수출 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의 라벨링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식품 및 화장품 과대표장 규제’

○ 식품 라벨 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① 식품명	⑥ 생산자, 판매자, 유통업자 정보 * 기업명, 소재지(주소), 연락처
② 중량 및 규격	⑦ 원료(성분) 배합표 * 배합비율에 따라 내림차순 표시
③ 원산지(국가명 또는 지역명)	⑧ 식품 유형, 영양성분표
④ 보관조건	⑨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
⑤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 냉장·냉동 육류 제품과 수산물, 건강·특수식품은 별도 라벨링 기준 적용

냉장·냉동 육류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영문 및 수출국 언어로 원산지, 제품명, 생산일자, 생산기업 등록번호, 제조날짜 표기 필요 -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 목적지, 생산일자, 보관 온도 등 표기 필요 ○ 수출국 정부의 공식 검역·검사 라벨 부착 필요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영문 및 수출국 언어로 제품명, 규격, 목적지, 생산일자, 로트번호, 유통기한, 보관조건, 생산방식, 생산지역, 생산 가공업체 기재 필요
건강식품·특수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문 라벨은 판매 제품 포장지에 인쇄되어야 함 - 라벨스티커 형태로 부착 금지 ○ 건강식품의 경우 ‘건강기능표시를 허용하는 건강기능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만 표기 가능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Ⅲ. 한-산동성 식품 물류 인프라

1. 산동성 물류 인프라

□ 산동성 물류 인프라 개요

- 산동성은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반도형 지역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우수한 해상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중 양 국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산동성에는 칭다오항·웨이하이항 등 15개의 대외개방형 해상항구와 8개의 공항항구가 위치해 있음 (자료:산동성 상무청)
- 산동성의 대표적인 항구인 칭다오항은 물동량 기준, 중국 내 3위, 세계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주요 항구 물동량 순위]

순위		항구명	연간 처리량 (TEU)
중국	세계		
1	1	상하이항	49,158,000
2	3	닝보-저우산항	35,300,000
3	4	칭다오항	30,000,000
4	5	선전항	29,900,000
5	6	광저우항	25,040,000
6	8	텐진	22,160,00
7	10	홍콩	14,342,000
8	14	샤먼	12,550,000

* 부산항 물동량 순위 : 세계 순위 7위(23,151,328 TEU)

[출처 : 알파라이너 2023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순위]

[산동성 물류 인프라 요약]

구분	특징	비고
항만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주요 항만 밀집 지역 ○ 냉장 물류, 컨테이너, 벌크 화물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다오항) 컨테이너 처리 중심지, 연간 처리량 4천만 TEU 이상 ○(옌타이항) 신선 식품, 벌크 화물 특화 ○(웨이하이항) 소규모 물류 및 카페리 운송 중심지
공항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국내 항공 화물 허브 ○ 신선 농산물 및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다오공항) 연간 70만 톤 처리 가능 ○(지난공항) 국제 특송 물류 활성화 (EMS, DHL) ○(옌타이핑라이공항) 소규모 항공 화물 처리
철도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유럽 화물열차(CR Express) 거점 ○ 내륙-항만 연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다오-유럽 노선) 독일, 폴란드 연결 ○(지난-유럽 노선) 러시아, 몽골 거쳐 유럽 연결
내륙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항구 및 도시 연결 ○ 물류 단지를 통한 지역 특화 물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다오 현대 물류단지) 글로벌 물류 기업 입주 ○ (웨이팡 물류 허브) 냉동 및 신선 식품 특화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 산동성 주요 항으로 수입된 화물은 항만, 공항, 철도, 내륙 물류 인프라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운송되며 입항부터 중국 주요 도시 도착까지 약 3일 소요
 - * 인천-칭다오 페리선으로 선적한 화물은 약 17시간 후 칭다오 대항 도착(익일), 검사검역이 없을 경우 당일 통관 후 칭다오 물류 집산지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운송 가능
- 산동성 주요 항구는 수출입 신고 서류와 상품 검역에 문제가 없을 경우 타 지역 항구 대비 통관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음
 - * 신선도가 중요한 우유의 경우 對중국 수출의 90% 이상이 산동성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산둥성의 주요 항구는 소규모 화물 운송이 가능한 페리선과 대량 화물운송에 적합한 정기 화물선 노선이 구축되어 있어 한국 식품의 對중국 수출의 주요 루트로 활용

[산둥성 항구별 주요 특징]

주요 항구	소속 항만	주요 특징
칭다오항 (靑島港)	칭다오항 (靑島港)	○ 전통적인 항만으로 일반 화물 및 여객 운송 중심 ○ 한국산 농식품의 주요 통관 관문
	황다오항 (黃島港)	○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 보유 ○ 글로벌 화물 처리 중심지
옌타이항 (煙台港)	룽커우항 (龍口港)	○ 벌크 화물 및 광물 자원 처리에 특화
	펑라이항 (蓬萊港)	○ 중소형 화물 및 지역 물류 지원
웨이하이항 (威海港)	룽옌항 (龍眼港)	○ 한국 평택항과 연결된 주요 카페리 항만 ○ 신선 식품 및 중소형 화물 처리에 유리
	스다오항 (石島港)	○ 한국 인천항 및 군산항과 연결 페리선 ○ 신선 식품, 자동차 등 복합 화물 처리에 강점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한-중 페리선 운항 현황]

출발지	도착지	운항 선사	운항 횟수	소요시간
인천항	칭다오항 (靑島港)	위동항운	주 3회	17시간
인천항	옌타이항 (煙台港)	한중훼리(주)	주 3회	14시간
인천항	웨이하이항 (威海港)	위동항운	주 3회	11시간
인천항	스다오항 (石島港)	화동훼리(주)	주 3회	15시간
평택항	룽옌항 (龍眼港)	영성대룡해운	주 3회	16시간
군산항	스다오항 (石島港)	석도국제훼리(주)	주 6회	12시간

* 정기 화물선의 경우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부산항~칭다오항 기준 약 1~2일 소요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2. 산동성 항구별 특징

□ 식품 수출 관련 산동성 주요 항구별 특징

- 칭다오항은 컨테이너선 정박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이 구축되어 있어 대량 화물의 수출입에 유리하며 신속 통관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옌타이항과 웨이하이항은 칭다오항보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으로 냉장·냉동식품 통관에 유리한 이점이 있음
- * 한국산 우유의 경우 중국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량이 웨이하이항과 옌타이항을 통해 수입됨

[식품 수출 시 참고하면 좋을 산동성 주요 항구별 특징]

항구명	항구별 특징	추천 식품
칭다오항 (靑島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물류 인프라)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냉장 창고 완비 ○(효율적인 통관) 한국산 농식품의 주요 통관 관문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내륙 연결) 중국 전역으로 물류 이동 용이 	대량 냉동/냉장 식품, 가공식품, 신선 농산물
옌타이항 (烟台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의 근접성) 짧은 운송 시간으로 신선도 유지에 유리 ○(한중 카페리 노선 운영) 안정적 물류 연결 ○(벌크 화물) 대량 화물 처리 가능 	신선 해산물, 과일
웨이하이항 (威海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물류 특화) 중소 수입업체에 적합 ○(카페리 노선 이용) 신속한 운송 가능 	소규모 신선 식품, 고급 식재료, 냉장 유제품
르자오항 (日照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 화물 처리 가능) 대형 화물선 정박 가능 ○(중국 내륙 철도 연결) 중국 중서부 지역 유통에 적합 	대량 곡물, 가공 식품
스다오항 (石島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군산/인천과 근접하여 운송 시간짧음 ○(냉동/냉장 물류 강점) 신선도 유지 용이 	냉동 해산물, 신선 과일, 수산물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 식품 수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신선식품(해산물, 농산물, 유제품 등)의 경우 운송 시간이 짧고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항구를 선택해야 함
 - 추천 항구 : 웨이하이항, 스다오항, 옌타이항
- 대량화물(곡물,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의 경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 가능하고 대형 화물이 선적하기 용이한 항구를 선택해야 함
 - 추천 항구 : 칭다오항, 르자오항
- 해관(세관) 업무 처리 속도 및 통관 규정 확인 필요
 -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우유의 경우 검사검역을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스다오항 선택이 유리
 - * 칭다오항은 검사검역이 없을 경우 당일 통관 가능하며 검사검역 있을 경우 익일 통관 가능. 칭다오 물류 집산지 이용 시 타지역 물류 이동이 유리함
- 내륙 운송이 필요할 경우 내륙 운송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항구 선택이 유리
 - 칭다오항, 르자오항은 철도 연결이 되어 있어 내륙 물류 운송이 산동성 타항구 대비 유리한 점이 있음
 - 칭다오항은 중국 타지역과 물류 네트워크가 타 항구 대비 잘 갖추어져 있어 타지역 물류 이송 시 칭다오항이 유리함
 - 웨이하이항과 옌타이항, 스다오항은 산동성 타 도시와 물류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고, 중국 타 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는 칭다오항 대비 열악하여 최종 목적지가 산동성일 경우 세 항구 고려 가능

3. 산둥성 물류창고

- 산둥성 콜드체인 물류창고는 633만 8,400톤 규모로 중국 내 1위임
 - (개요) 산둥성은 신선식품(농산물, 해산물, 유제품 등) 생산·수요가 중국 타 지역 대비 많아 신선식품 보관·포장·유통 관련 콜드체인 물류창고가 발달해 있음
 - (교통) 중국 동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를 비롯한 중요 항구가 있으며 신속한 운송 및 유통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인프라) 산둥성에는 6개의 콜드체인 중점 도시(骨干冷链物流基地)가 있음
 - *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웨이팡, 지난, 지닝
 - (정책) 산둥성 정부는 2025년까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생산기지+물류센터+조달 및 유통’이 일체화 된 현대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 < 산둥성 14차 5개년 콜드체인 물류 발전 계획(山東省十四五冷链物流發展規劃) >
- (물류창고) KOTRA 칭다오무역관 공동물류센터와 협력 관계에 있는 물류사는 총 7개 사로 칭다오(4개), 웨이하이(2개), 인천(1개)에 소재
 - 물류창고별로 특화된 기능이 있는 만큼, 수출기업은 창고별·항구별 특징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함
 - * 칭다오무역관 협력 물류사 중 냉장·냉동창고가 구비된 물류사는 금문국제화운(金門國際貨運)과 더성자(德生佳倉庫)가 있음

[KOTRA 칭다오무역관 협력물류사]

연번	물류사명	지역	창고		기능		비고
			상온	냉장	일반	보세	
1	금문국제화운 (金門國際貨運)	칭다오	√	√	√		상온/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유통
2	더성자 (德生佳倉庫)	칭다오	√	√	√	√	상온/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유통
3	제허화룽 (杰和華龍倉庫)	칭다오	√	√	√		-
4	청예 (誠業倉庫)	칭다오	√		√		-
5	러메이쥬 (樂美聚倉庫)	웨이 하이	√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전문
6	판야 (泛亞倉庫)	웨이 하이	√		√	√	-
7	중하이촨 (中海川倉庫)	인천	√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전문

[출처 : KOTRA 칭다오무역관]

[참고 : KOTRA 공동물류센터 사업]

1. 사업개요

- 해외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지원대상 및 참가비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중소기업
-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 · 중견기업(50%), VAT포함)
 - 중국지역 무역관 : 칭다오, 상하이, 베이징, 난징, 정저우, 창춘, 홍콩, 타이베이
 - *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3. 지원사항

-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수출마케팅 등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 1개사 당 연간 최대 3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 지원가능 여부 검토 및 참가업체 선정 →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개시
- * KOTRA 홈페이지 → 사업명: 물류 검색 →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신청
- *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첨부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IV. 냉장·냉동식품 수출 사례 및 시사점

1. 냉장·냉동식품 수출 사례

산동성은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신속 통관 △콜드체인 창고 △우수한 내륙 물류 인프라 등 냉장·냉동식품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냉장·냉동식품은 산동성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가 많음

아래 사례를 통해 산동성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수출되는 냉장·냉동식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1) 치즈볼

- 중국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입산 신선식품·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신선식품 대형 유통망 HemaFresh*와 협력하여 국내기업 A사의 치즈볼을 중국에 수출시키는 데 성공시켰음
 - *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신선식품 수입유통 전문브랜드로 30분 내 신속배송 가능
 - 가공치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공치즈 제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 업체는 많지 않아 수입산 가공치즈 제품 인기가 높음

HemaFresh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신선식품 수입유통 전문브랜드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O2O(Online-to-Offline) Store 운영, 온라인 앱을 통해 30분 내 신속배송 서비스 운영



-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치즈볼 제품을 발굴하는 한편,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 업무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기업의 치즈볼을 중국에 수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

* 바이어 매칭·상담 주선, 수출입 및 물류통관 실무 업무 지원, 현지 마케팅 지원 등

- 바이어인 HemaFresh와 협력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입맛*을 파악하여 제품의 현지화를 지원하였음

* 최근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저당·저열량 선호 트렌드에 맞춰 단맛보다는 담백한 맛이 강조되도록 제작

□ 치즈볼 제품은 칭다오항을 통해 중국 각 지의 HemaFresh 신선식품 전문 매장에 유통

○ HemaFresh 매장은 중국 전역에 다수 있지만, 한국산 신선식품은 칭다오항구를 통해 수입통관하고 있음



[사진 : KOTRA 칭다오무역관]

(2) 꼬마피자

- 중국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입산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 칭다오무역관은 한국의 간편 냉장·냉동식품을 발굴하여 중국의 수입산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공략하였음
 - 국내기업 B사의 꼬마피자 제품은 수입산 간편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프리미엄 식품 유통 업체 Ole*와 협력하여 B사의 꼬마피자 중국 수출 지원
 - * 중국 대형 부동산 그룹 화룬그룹(華潤) 산하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

Ole Supermarket

- 부동산개발·유통업을 메인으로 하는 화룬그룹 산하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 업체
- 본사는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은 중국 주요 도시에 분포한 화룬 완상청(華潤 万象城) 쇼핑몰 내에 위치



- Ole측은 B사의 꼬마피자 제품이 조각피자 보다 작아 소형 간편식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으로 평가했으나 조리법 및 포장지를 현지 사정에 맞게 변경할 것을 건의
- * 중국 소비자들은 오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중국 수출용 제품 포장지에 전자레인지 사용 조리방법을 기재하였음
- * 수입산 꼬마피자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품 사진을 확대하고 제품명을 한글과 영어로 기재

- 꼬마피자 또한 치즈볼과 동일하게 칭다오항을 통해 수입되어 광저우·선전 등 중국 전역에 분포한 Ole 매장에 유통
- 중국 남부에 위치한 광저우·선전 매장에 유통되는 꼬마피자는 신속 통관 및 내륙 운송 인프라가 잘 구축된 칭다오항을 통해 수입유통됨



[사진 : KOTRA 칭다오무역관]

(3) 계맛살

- 신선식품 신속통관·콜드체인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둥성을 통해 수입되어 중국 전역에 유통되고 있음
- 냉장식품 통관이 필수적인 계맛살은 스다오항(웨이하이 소재), 칭다오항을 통해 수입 유통되고 있음
- 스다오항을 통해 수입되는 계맛살은 산둥성 지역에 유통되며, 스다오항은 계맛살·우유 등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 식품 유통에 유리함
 - * 한국과 가장 가깝고, 신속통관이 가능하며, 냉장창고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점

- 산동성 외 지역으로 유통되는 게맛살의 경우 칭다오항을 통해 수입
통관되어 중국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음

- 게맛살은 2020년 처음으로 중국에 유통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 전역 대형 마트·편의점·온라인 매장에도 유통되고 있음
- 게맛살과 유사한 제품이 중국에 없었다는 점, 제품 색이 실제 게살과 유사
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 게맛살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사진 : KOTRA 칭다오무역관]

(4) 우유

- 타 신선식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우유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의 100%*에 가까운 물량이 산둥성을 통해 수출
 - 저온 신선우유는 제품 특성상 타 제품 대비 유통기한이 짧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수입유통 시 신속통관·콜드체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항구를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
 - 산둥성 소재 항구를 통해 수입된 한국산 저온 신선우유는 생산일 부터 1~3일내 중국 전역에 공급됨
- * 2019~2024(~10월)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대산둥성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 : 99.8%
-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신속통관이 가능해진 것은 2008년 중국 멜라닌 분유 파동 시 한국산 신선우유를 당일 통관 허용한 것이 시초임
 - * 당시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해관측에 한국산 신선우유가 당일 통관되어 현지에 유통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요청하였고, 한국산 신선우유가 당일 통관되어 수출될 수 있게 하는데 일조
 - 산둥성 스텐다오항·칭다오항 등은 저온 신선우유가 수입유통되기 최적의 조건(신속통관 및 냉장 창고, 물류 인프라)이 갖추어져 있음



[사진 : KOTRA 칭다오무역관]

(5) 냉동김밥

- 중국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간편식·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가
 - 김밥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김밥에 대한 수요 증가
 - C사는 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식품기업 최초로 중국에 냉동김밥을 수출하기로 결정
 - C사는 냉동김밥 중국 수출을 위해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을 받아 중국 선전에 위치한 샘스클럽에 냉동김밥을 입점시키는 데 성공 (자료:연합뉴스)
 - 홍콩에 근접한 남부 도시 선전으로 유통되지만 수입통관은 칭다오항을 통해 진행
 - 중국 타 지역의 항구 보다 산둥성(칭다오항)이 냉동식품 신속통관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냉동식품 저장 창고 및 통관 후 내륙 운송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칭다오항을 통해 수입통관 후 선전으로 내륙 운송됨



[사진 : 징동(京东)]

2. 시사점

- 최근 중국 식품 시장 트렌드(간편식, 가공식, 건강식)를 반영한 제품 개발 필요
 -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펜데믹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밀키트와 같이 편리한 간편식 가공식품, 건강 개선에 도움되는 기능성 식음료·무가당 간식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냉장·냉동식품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주목 받으며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간편·가공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더불어 산업 환경 변화(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확대)는 소비자의 냉장·냉동식품 접근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킴에 따라 냉장·냉동식품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 냉동식품 주요 소비층을 파악하고 소비층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 필요
 - 최근 중국 냉동식품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위 소득대 20~30대 여성임
 - 중위 소득대(월 소득 5천~1만 위안) 20~30대 여성은 빠르게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다양한 식감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향후에도 젊은 여성들이 냉동식품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중국 냉동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해외생산기업 등록, 라벨링 등 중국 식품 수출 관련 절차 숙지 필요
 - 해외생산기업 등록·라벨링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수입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전 관련 절차를 철저히 대비해야

- * 미역을 수출하는 D사는 해외생산기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출하여 수출한 미역이 중국 항구에 도착 후 전량 폐기되었음
- * 라벨링의 경우 중국 통관 거부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 라벨링 및 제품 포장지 디자인 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인해야 마케팅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관련 키워드가 라벨링 또는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미용 관련 용어(저당, 저칼로리, 콜라겐 등)가 기재된 라벨링/포장지의 경우 바이어·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편이지만,
 - 트렌드와 무관한 내용(탄수화물·지방 수치 등)만 라벨에 강조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 對중국 냉장·냉동식품 수출 시 산동성 물류 인프라 적극 고려해야

- (지리적 이점) 산동성 소재 항구는 중국 타 지역 항구에 비해 한국에서 가깝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식품 신선도 유지에 유리함
 - * 인천-웨이하이 직선 거리는 약 370km에 불과
- (항구별 특징 파악 필요) 산동성 항구별로 수입통관에 적합한 품목이 다르므로 수출하려는 식품에 적합한 항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 *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유제품 및 해산물의 경우 스다오항 또는 옌타이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식품 수량이 많고 중국 타지역으로 유통할 경우 칭다오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 (콜드체인) 산동성에는 냉장·냉동 창고를 보유한 물류통관사들이 소재해 있어 식품 통관 후 냉장·냉동 보관이 가능하여 신선도 유지에 용이함

작 성 자

- 청다오무역관 천세영, 송영매

냉장·냉동식품, 중국 수출 가이드

-산동성 물류 인프라 중심으로-

KOTRA자료 24-219

발	행	일	2025년 1월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	이	www.kotra.or.kr
문	의	처	청다오무역관(86-532-8388-7935)

• ISBN: 979-11-402-1254-5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